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The 2nd Man Jesus)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과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삶의 모델을 확정하여 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I. 둘째 사람의 정의는 ?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을 흙에 속한 첫사람이라 부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서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둘째 사람이라 부릅니다. 첫사람의 시작이 타락한 아담이고, 둘째 사람의 시작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사람들의 보편적 형상이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보편적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고전 15:48-49 에서 첫사람 에게 속한 성질과 둘째 사람에게 속한 성질을 지적하는 말들을 찾아 보시오.

고린도전서 15 : 48

고린도전서 15 : 49

바울 사도는 첫사람의 인격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에베소서 4 : 22

바울 사도는 둘째 사람의 인격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에베소서 4 : 24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시작으로 하여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와 둘째 사람이 같은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인자는 메시아적 명칭이며, 둘째 사람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인자이며,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자들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다음 구절은 중생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 : 17

II.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본질적 차이는?

첫사람 아담(흙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기원이 흙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람은 흙에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 왔습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 : 47

둘째 사람은 땅에 오시기 전 하늘에 계실 때 어떤 모양으로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 : 1

- 이 구절에서 ‘태초’ 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창조 전의 태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선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슴 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가 나타내셨습니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 : 18

-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나사렛 예수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이 ()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 : 14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 Incarnation 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을 Begotten Son 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begotten Son 을 이 땅위에 보내셨습니다. 이 분은 구속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입니다.

둘째 사람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III.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은 이성일위(二性一位, Hypostatic union)의 삶입니다.

<이성일위(Hypostatic union)>

이성(二性, Two Nature)은 신성(Deity)과 인성(Humanity)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일위(一位, One Person)는 하나의 위격,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인격인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이 두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인격이 신성의 인격에 완전히 굴복하여,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온 둘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생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성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둘째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 이성일위의 인격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이루어진 이성일위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 : 20

IV. 새로운 삶을 살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고린도후서 5 : 17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은? _____

골로새서 3 : 1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_____

골 1:13
